

치사율 100% ASF... 조기 차단 '총력'

전북농협, 방역회의 개최 시·군지부 상황실 설치 양돈농가 일제소독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16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17일 지역본부에서 긴급 비상 방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유재도 본부장은 ▲지역본부 및 각 시군지부에 상황실 설치 ▲비상연락망 정비 및 방역용품 점검 ▲양돈농가 일제소독 실시 및 소독 여부 지역본부 점검 ▲시군과 협력하여 방역 전념 등을 지시했다.

또한 ASF 발병국가 여행금지, 방문시 가축시장 방문금지, 축산물 및 가공품 반입금지, 국내 양돈농가 방문금지 등 농민들에게 철저한 안내를 당부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전북농협이 17일 지역본부에서 ASF 긴급 비상 방역회의를 개최했다.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52개 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다. 정부는 ASF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앞으로

48시간 동안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과 관련 시설 등에는 차량이 드나들 수 없다. 유재도 본부장은 "ASF는 발병하면

치사율이 100%인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며 "조기 차단과 방역으로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 '시급'

중소작물보호제 판매업체 90% 개인정보 확인·절차 불편 호소 농약 판매 92.4%가 농민임에도 영세율 적용 안 돼... 마침 빈번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업체를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문 리서치 기업에 의뢰하여 826개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중소기업의 90%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 비중은 '경영체 등록농민'(79.6%), '경영체미등록농민'(12.8%), '사업용'(3.9%), '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체등록농민'과 '경영체미

등록농민'의 판매비율을 합산하면 92.4%로 농약판매상의 거래대상은 농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인에게 농약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있으나, 농협과 농약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필요하여 현장에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되나, 그 외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며, 환급까지 자금 융통성 문제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결과 농약의 농민대상 총 판매비율은 92.4%로, 농약 판매 업체의 주 고객은 농민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한국금거래소 쓰리엠 실버바' 판매 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한국금거래소 쓰리엠 실버바'를 전 영업점에서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롭게 판매하는 '한국금거래소 쓰리엠 실버바'는 1kg 단일 중량으로 판매되며, 골드바의 대체재로 떠오른 실버바의 판매개시로 고객의 투자 수요를 충족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골드바도 기존 6종(10g, 37.5g(10돈), 100g, 187.5g(50돈), 375g(100돈), 1kg)에서 1종(3.75g(1돈))을 추가한 7종으로 판매권종을 확대하여 고객의 투자선택폭을 확대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실물 투자상품으로 각광 받는 실버바를 농협은행 전 영업점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며, "다양한 실물투자 상품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관원, 추석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55개소 적발

거짓표시 43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12개소 과태료 부과

이번 추석에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26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300개소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55개 업소(거짓표시 43, 미표시 12)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했다. 전북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3개 업소는 수사하여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300개소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55개 업소(거짓표시 43, 미표시 12)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품목은 가공식품이 20건(과자류 13, 두부류 6, 떡류 1) 36.3%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4건, 축

산물 5건, 당근과 도라지, 과일 등의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mp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을 지급한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오늘부터 '가공농기구' 특별전시회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21일간 농업과학관(전주시 덕진구, 본청 별관)에서 '할머니가 전해주는 가공농기구의 지혜'를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연다.

농촌진흥청이 소장한 농기구 60여점을 활용해 구성한 이번 전시는 ▲손길 많은 잔치준비 ▲정성이 담긴 잔치음식이라는 2개의 큰 주제와 오랜 삶의 의미 곡수, 영양이 많은 두부와 김, 귀한 상에 오르는 떡, 풍미를 더하는 전통주 등 4개의 소주제 및 체험으로 전시장 입구부터 잔치집에

초대 받아 가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손길 많은 잔치준비'에서는 곡물을 가공하기 위해 찧기, 솟기, 찰기, 타기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여준다.

'정성이 담긴 잔치음식'은 곡물로 음식이 만들어 지는 다양한 가공농기구를 4개의 작은 주제로 소개한다.

'오랜 삶의 의미, 곡수'는 곡수가 만들어 지는 과정과 농기구의 원리를 보여준다. 소주제인 '영양이 많은 두부와 김'은 두부와 김의 영양에 대한 설명과 함께 두부판, 김들 등 제작과

정별로 농기구가 전시된다. '귀한 상에 오르는 떡'은 곡물의 변화와 다양한 종류의 떡 제작 방법이 소개된다. '풍미를 더하는 전통주'는 술의 종류와 농기구를 통한 소주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소개된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농촌진흥청 송금찬 연구성과관리과장은 "우리 전통음식 문화를 다양한 가공농기구 전시를 통해 알아보고, 정성과 소박함이 담긴 선조들의 음식 제조 도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요소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한다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 자유공모 방식... 내달 10일까지 신청·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17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술개발분야(글로벌도약과제)'를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인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발굴된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품목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관기관은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준기업으로, 총 사업비의 69%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이내에서 정부출연

금으로 지원한다. 과제 선정 후, 중소기업의 R&D 수행 시 기술사업화, 투자 및 특허 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서면평가, 대면평가, 지원과제 확정이 10월 말 이전에 모두 진행되며 11월에 협약체결이 이루어져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역할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시스템(www.smtch.go.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114),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63-210-644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